캐나다 "짜장면 원더풀" 룩셈부르크 "배달치킨 판타스틱"

젊은 외국선수들 남도 음식에 매료

"가족에 맛 보여주고 싶다"
광주김치·사찰음식 인기
영산포 삭힌 홍어도 화제

"K-푸드(한국음식) 최고!"

광주 U대회에 참가중인 젊은 외국 선수들이 남도와 대한민국의 맛에 흠뻑 빠져들고 있다.

먹성좋은 젊은이들답게 짜장면과 배달치킨부터 김치와 사찰음식에 이어 삭힌 홍어까지, 남도의 맛과 대한민국의 대표 음식을 넘나들며 식도락(食道樂)에 여념 없는 모습이다.

캐나다 태권도 코치인 조엘(48)씨는 요즘 우연히 맛본 양동시장 치킨 맛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조엘씨는 "양동시장에 찾아가 맛 본 치킨 맛이 일품이었다"면서 "바삭하고 고소한 양동 치킨의 맛은 태어나서 처음 접해보는 환상적인 맛으로, 고향 캐나다로 가져가 가족들에게 맛을 보여주고 싶을 정도"라고 극찬했다.

또 다른 캐나다 선수는 "한국 예능방송·드라마에서만 보던 '짜장면'을 꼭 맛보고 싶었으나 캐나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선수촌 인근을 지나다 중국음식점에서 짜장면을 먹게 됐는데 정말 잊을 수 없을 맛이었다. 캐나다 선수들 사이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음식이 짜장면"이라고 설명했다.

룩셈부르크 선수단장인 기 퓌시그(60)씨는 "한적한 룩셈부르크의 분위기와는 달리 매일 활기차게 움직이는 광주에서 지금까지 먹은 음식중 '치킨'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유럽에서 맛보기 힘든 음식인데다 배달까지 된다고 해 신기할 뿐"이라고 말했다.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난 6일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회장단과 각국 대표단에게 대접한 사찰음식도 화제다.

이날 광주 증심사 대웅전 앞마당에 차려진 사찰 음식 만찬에는 글로드 루이 갈리앙 FISU회장과 에릭 상트롱 사무총장, 참가국 대표단 등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는데 음식이 나올 때마다 휴대폰 사진 촬영 등이 이어지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게 조직위의 설명이다.

이날 소개된 사찰음식은 연잎 유미죽과 죽순 겨자냉채, 사찰김치와 나물두부강정, 콩고기 산적 등 40종이 넘었고 황차와 연꽃차, 연잎차 등 각종 차가 더해졌다.

데이비드 카렐로 스페인 선수단 대표단장은 "음식 자체가 흥미롭고 스페인에는 없는 방식의 음식"이라며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맛을 느꼈고 혀의 새로운 감각을 찾는 것 같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랍 커펀 네덜란드 선수단 대표단장도 "네덜란드에도 한국 음식점이 있지만 사찰음식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맛은 만점을 주고 싶다. 아름다운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치 본가 광주 김치도 큰 인기다.

선수촌 주변 반찬가게 등에는 김치를 맛보려는 외국 선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처음 맛보는 매운 김치맛에 푹 빠져든 외국인 선수들이 많다는 게 조직위의 말이다.

광주 U대회 조직위가 마련한 팸투어(광주·나주·담양 등 6개 도시)에 참가한 외국 선수들 사이에는 나주 영산포 '홍어의 거리'에서 맛본 삭힌 홍어가 단연 화제다.

/특별취재단=박진표·박기웅·백희준기자

외국생활 잠시 접고 … 교포로 유학 중
통역 자원봉사로 광주의 따뜻한 情 전달

김누리·이예진씨 화제

김누리씨

이예진씨

수년간의 외국 생활을 뒤로 하고 모국 또는 고향에서 치러지는 국제대회 성공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뛰는 청년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외국어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 한국과 광주의 따뜻한 정(情)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김누리(여·23)씨. 그는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던 중 고향인 광주에서 U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통역자원봉사자에 지원했다. 오랫동안 한국과 광주를 떠나있었지만, 세계청년들의 축제에 뭔가 힘을 보태고 싶었다. 그는 이동 통역 기동반으로 선수촌과 선수들이 KTX를 타고 도달하는 송정역, 경기장 등 주요 장소에 파견돼 통역 활동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광주에서 살다가 호주 유학생활을 시작한 그는 "고향인 광주에서 자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면서 "146개국의 수많은 세계인들에게 광주의 따뜻한 인심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수촌 방문객들의 첫 관문인 방문객 출입증 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이예진(여·21·성균관대 심리학과 2년)씨의 이력도 특이하다. 가족들과 함께 브라질로 이민을 갔다가 한국 대학을 진학한 '교포 유학생'이다. 이씨는 한국어와 영어·포르투칼어·스페인어·불어 등 5개 언어를 구사하는 통역자원봉사자 중 몇 안되는 실력자다. 브라질 현지 국제학교를 11년 동안 다닌 탓에 5개 언어 통역이 가능하다.

이씨는"U대회로 광주와의 인연이 시작됐다"는 이씨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광주에서 만난 시민들 그리고 외국인과의 인연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단=백희준기자 bhj@
/사진=김진수기자 jeans@

'광주의 온정' 아이티 청년에 새 꿈 줬다

'나 홀로' 참가 알티모스에
남부대 교수·학생들 후원
문영수법무사 100만원 지원

카리브해 최대 빈국 아이티에서 보호장구와 감독·코치 등도 없이 '나 홀로' 광주 U대회에 참가한 알티모스(26·태권도 대표)가 7일 광주 남부대 무도 경호학과 최승식 교수의 후원을 받아 남부대 학생들과 함께 발차기 훈련을 하고 있다.

특별취재단=/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카리브해 최대 빈국 아이티에서 '나 홀로' 광주 U대회에 참가한 알티모스(26·태권도 대표) 선수가 기본적인 장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남부대학교 무도경호학과 최승식(48) 교수와 학생들이 발벗고 나섰다. 〈광주일보 6일자 1면〉

7일 오후 남부대 최승식 교수는 알티모스 선수가 당장 시합에서 사용해야 할 팔·정강이 보호대 등을 후원했고, 고국인 아이티에 돌아가서도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몸통·머리 보호대, 도복 등을 추가로 전달했다.

또 '나 홀로' 참가 선수인 알티모스가 겨루기 연습 상대가 없어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부대 태권도 교육장을 훈련 장소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태권도 선수 출신 학생들과 매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알티모스는 이날부터 남부대 무도경호학과 학생들과 겨루기 연습을 하는 등 맹훈련에 들어갔다.

특히 세계태권도연맹(WTF) 규정에 따라 태권도 국제대회의 경우 '세컨'을 해주는 코치나 임원 1명이 동행해야만 경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회 출전이 어려울 수 있지만, 알티모스의 딱한 사연에 대회운영본부 측도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등 시합에 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중이다.

광주에 도착한 뒤 훈련다운 훈련을 할 수 없었다는 알티모스 선수는 이날 남부대 학생들과 어울려 그동안 쌓아왔던 훈련의 욕망을 분출하듯 거침없는 발차기를 선사했다.

흥에 겨운지 국내 태권도 시범단 선수들도 어렵다는 이른바 '외발턴차기'를 보여주는 등 실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최승식 교수는 "어려운 형편에도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에 우리 학생들 모두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섰다"며 "알티모스의 겨루기 실력을 보니 그동안 실력을 탄탄히 쌓아왔다는 게 확연히 느껴져 후원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뿌듯하다"고 말했다.

알티모스 선수는 "태권도의 나라를 방문한 것도 영광이지만 진심을 다해 도와주는 광주의 정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담양의 문영수(74) 법무사도 이날 광주일보 보도를 접하고 알티모스에게 장학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광주 그린카진흥원 오영(64) 원장도 승단 심사 비용 등 200달러를 전달하기도 했다.

특별취재단=/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U대회 이모저모

마사지 치료실 선수들 북적 최고의 '명소'

광주U대회 선수촌내 마사지 치료실이 매일 100여명의 각국 선수들이 찾는 등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다.

경기를 앞두거나 경기를 끝낸 선수들이 뭉친 근육을 풀기 위해 매일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잡았다.

U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4일 문을 연 마사지 치료실은 조선대 체육대생 가운데 마사지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14명, 민간 스포츠센터에서 6명 등 20여명이 선수들을 맞고 있다.

문을 연 지난 4일 50명이 이용한데 이어, 둘째 날엔 90명, 그리고 셋째날인 6일엔 100여명이 찾는 등 매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근육이 뭉치기 쉬운 유도나 태권도, 육상, 높이뛰기, 축구 등의 종목 선수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다.

광주시 직원들, 선수촌에 우산 300개 전달

광주시청 직원들이 오는 9일까지 비 예보에 따라 우산을 모아 광주 U대회 선수촌에 전달했다.

광주시 직원들은 7일 오전 7시께 선수촌에 '우산보내기 운동'을 한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결혼 답례품 등 각 가정에 보관중인 우산을 챙겨 출근했다. '우산보내기 운동'은 7일 새벽 선수들이 우산 부족 등으로 비를 맞을 것을 우려한 조치로, 이날 모은 우산 300여 개는 선수촌장과 선수들에게 전달됐다. 우산은 각 호실별로 2~3개씩 배부해 선수들의 경기장 이동과 시내 관광 등에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특별취재단=최권일기자 cki@